

구례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주거환경 민원 해소 위해 제작
주거밀집지역 200m 이내 등
가축 차등 적용...부업용은 예외

조례'가 개정된 데 이어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거밀집지역(5호 가구 이상) 등으로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종별로 거리제한을 하고 있다. 군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체면적(443.26km²)의 81.6%(361.81km²)이며 이중 전부제한구역은 45.9%(203.52km²), 일부 제한구역은 35.7%(158.30km²)이다.

전부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부터 200m, 상수원보호구역과 하천경계에서 100m 이내 지역 등으로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며 일부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부터 100m 이내로 가축의 유형별로 차등 제한된다. 단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미만의 소(젓소 포함), 돼지, 말, 사슴, 개, 양이나 10마리 미만의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최근 대입원 판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표시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은 경우 각 지체체가 지정해 놓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지형도면 고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의 법적 효력 발생 근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한구역 외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이 가능하므로 축사 신축의 무조건 반대 요구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시된 지형도면은 구례군 환경교통과 방문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전남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출범

보성군에서 전남도민의 스포츠 축제인 '제58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다. 6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58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내년 열릴 대회의 성공개최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와 대회 준비상황 보고, 안전 심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는 군민과 각계각층의 인사 10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체육대회 관련 기술자문과 현안

협의 등을 통해 체전 준비를 지원한다. 특히 행사 참여 및 자원봉사 등에 동참해 체전의 분위기 조성 및 대회 홍보 등 성공체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위원장인 김철우 보성군수는 "전라남도체육대회를 통해 많은 선수단과 관람객이 방문하는 만큼 성공체전, 명품체전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제58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내년 4월께 녹차수도 보성에서 개최되며 육상, 테니스 등 총 22개 종목에 1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전남 최대 규모의 체육행사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고흥군 농수특산물 미국 시장 개척 나섰다

12일까지 LA 특판전...농산물 14개·수산물 7개 품목 판매

고흥군이 고흥산 우수 농수특산물로 미국 시장 개척에 나섰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 우수 농수특산물 특별판매전'이 오는 12일까지(현지시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최대 규모 한인마켓인 한남체인과 S-마트 두 곳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미국 판촉행사는 지난해 고흥군이 미주지역 시장개척단과 수출상담회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된 미국 유통업체인 키트레이딩(대표 류돈희)과 함께 지속적인 미주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판매 품목은 지역 대표 상품인 '유자·석류' 제품을 비롯해 6년 연속 전남 브랜드 쌀로 선정된 '수호천사 건강미' 등 농

산물 14개 품목이다. 또 청정수역에서 자란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9개 품목과 고흥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방풍김치, 감태김치 등 김치류를 포함한 7개 품목 등 군에서 엄선된 제품들로 구성됐다. 미국 교민에게 고흥의 건강한 맛을 직접 선보이기 위한 유자와 석류, 김치 등 다양한 시식행사도 진행된다. 구매자에게 '수호천사 건강미'라는 해풍을 맞고 자란 김치 쌀을 증명하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미주시장은 많은 교민들이 살고 있어 우리군 농수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매력적인 장소이고 특히 최근 K-POP 열풍으로 인해 한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수출증대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미국 판촉전이 일회성 행사



'고흥군 우수 농수특산물 특별판매전'이 오는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최대 규모 한인마켓인 한남체인과 S-마트 두 곳에서 열린다. <고흥군 제공>

구례군 하계 전훈지 각광...1000여명 훈련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구례군이 운동선수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6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축구·태권도·철인 3종 등 종목 선수 1000여명이 구례에서 하계 전지훈련을 하고 있다. 구례는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있고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 등 체육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 구례읍의 날씨는 다른 내륙보다 1~2도 낮은 수준이지만 지리산은 최고 10도 이상 시원해 피서객뿐 아니라 운동선수들에게도 환영받고 있다.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 선수 등 150여 명이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첫 하계 전지

훈련을 시작했으며 광주대학교 축구부 등 11개팀, 400여명의 축구선수들이 더위도 잊은 채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했다. 여자씨름 발상지인 구례는 씨름선수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매년 실업팀 등 14개팀이 공설 전천후 씨름장을 찾아 훈련한다. 철인 3종 청소년국가대표 등 9개 팀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일간 훈련 중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올해 동계 전지훈련 기간에 1만6000명 이상이 구례군을 찾아 12억원 이상의 직간접 효과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전지훈련팀 및 전국 스포츠 대회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익명으로 온 선품기 200대

"독거노인들에 전해달라"...보성군 12개 읍·면에 배분



폭염 속에 익명의 기부자가 홀몸노인들에게 선품기를 보내 화제다. <사진> 6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일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주민복지실에 전화를 걸어 "선품기를 구매해 보낼 테니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 남성의 이름 등을 몰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통화 이후 선품기 200대를 실은 택배 트럭이 도착했고 보성군은 12개 읍면사무소에 선품기를 고루 배분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선물을 받게 돼 감사드린다"며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홀로 사는 노인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고흥군 15일까지 방제기간 벼 병충해 대대적 방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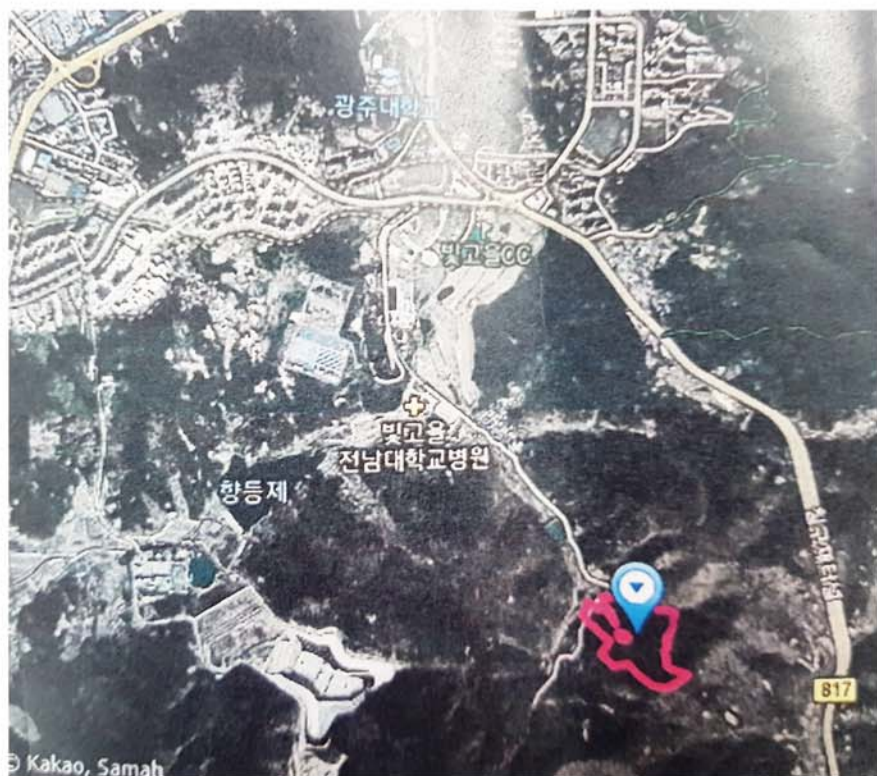
고흥군은 오는 15일까지를 '벼 병해충 기본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 방제 활동에 나선다. 최근 계속되는 이상고온으로 멸구류와 먹노린재, 나방류 등 병해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병해충 기본방제 기간을 지정해 홍보 및 현장기술지도도 펼치고 있다. 이번 기본방제 기간에는 멸구류와 먹노린재, 흑명나방,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 초기 종합방제를 실시해야한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멸구류와 먹노린재 등 해충 발생정도에 따라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며 "여러 가지 농약을 혼용 살포할 경우 약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맞춰 살포할 것"을 당부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곡성군 청계동계곡 내년 6월까지 휴식년

곡성군 청계동계곡이 내년 6월말까지 자연휴식년에 들어간다. 곡성읍과 입면 사이에 위치한 청계동계곡은 동약산이 큰 용처럼 달려오다 강줄기를 만나 멈춘 곳으로, 여름에는 맑은 물이 계곡 사이로 흐르고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시원한 그늘이 많다. 계곡 바닥에 깔려 있는 바위와 돌들은 매끄럽고 부드럽어 앉아서 놀기가 좋고

계곡을 오르는 산책길의 경사도는 평지와 같이 완만해 여름철이면 피서지로 각광받는 곳이다. 하지만 취사와 야영, 쓰레기 무단투기로 계곡 수질과 생태 환경이 훼손되면서 생태계 회복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휴식 기간을 가지며 행락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곡성=김계국 기자 kjkim@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5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